

초등학교 영재학생의 부적응 문제 치유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건국대학교 영재교육 연구회 김 창 희

건국대학교 교수 진 석 언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연구원 전 미 란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언

영재아들의 정의적 특성 연구를 위하여 외국의 문헌을 검토해 보면,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관점은 Terman 등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영재아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문제나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이와 상반된 두 번째 관점은 Hollingworth 등의 관점으로, 영재아에게는 특별한 욕구와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 두 번째 관점의 연구자들은 Terman 연구의 표본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은 영재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영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영재아의 학습부진 및 미성취, 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특목고 학생들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장애와 심리적 충동이 보고되면서 영재아의 정서적 취약성과 영재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영재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보통 또래들과는 달리 이들 영재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의 문제와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 학교 그리고 영재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영재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표 1 > 연구대상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연구대상 A (정지훈)	연구대상 B (지현우)
학년 (나이)	3학년 (10세) 생년월일 1996년 7월 12일	3학년(10세) 생년월일 1996년 3월 20일
부모 직업	어머니 서비스 경영	아버지는 태권도 학원, 어머니는 미술학원 운영.
가족사항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학력	아버지 고졸 어머니 고졸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경제력	중류 중에 중	중류 중에 상
부적응의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관심 없음. •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정이 폭발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짐.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책에 지나치게 몰두함. • 자기 물건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 구분이 없음. • 주의가 산만하고 움직임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에 맞서는 듯한 느낌의 잠꼬대를 심하게 함. • 자신이 흥미가 없는 활동을 할 때에는 금방 잠이 듦. • 학교 숙제하는 것을 싫어하여 숙제하는 데에도 오랜시간이 걸리고, 숙제를 할 때에만 글씨가 약필이 됨. •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으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대부분 리더의 역할로서 친구들을 조정함.
특이사항	• 초등학교 1학년 때 놀이치료 6개월간 받은 경험 있음.	• 5세 때 놀이치료 3개월간 받은 경험 있음.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된 아동들은 높은 지적발달 만큼 정서적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부적응 문제가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지적욕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지나친 독서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친구들과의 적절치 못한 대화법과 수준 높은 어휘 사용 등으로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시켰고, 참여활동을 기피하며 혼자놀이를 즐기면서 친구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후에 친구들의 무관심으로까지 변하였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기회 부족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하였다.

둘째, 학교에서의 획일적인 수업과 개별적이지 못한 수업으로 인해 산만해지고 과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

추어 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변하여 지나친 고집, 불안, 잠꼬대, 잦은 두통, 배 아픔, 변비 등 경미한 것에서 심각한 증상으로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들의 영재성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에게 신뢰감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지훈이는 사람들보다 책에 애착을 느꼈고,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만들었다. 지훈이의 반응을 과도한 텔레비전의 시청과 책으로써 조용하게 잠재우는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분리 불안을 야기시켰다. 현우 역시 애착이 형성되는 9개월 이후 어머니와 떨어지면서 분리불안을 겪었고, 이것은 현우에게 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넷째, 지훈이와 현우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노력은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 영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지훈이와 현우의 지적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보통 또래들과 다르다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들의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이나 재미있는 활동, 개별화된 과제 등을 제시하여 자신의 기쁨이나 불안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불만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분출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지훈이와 현우의 산만함이나 잘못을 꾸짖기 보다는 담임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학교 담임선생님이 그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수업시간에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 더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 대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지루한 수업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영재교육 수업은 학교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반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수행이 우수하고 뛰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영재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영재아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과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그들의 높은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